

9/4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13:1-2, 5, 7-8, 10

1 각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이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복종과 사랑과 전쟁으로 인한 변화****I. 복종으로 인하여**

로마서 13 장 1 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이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회복역 참조)고 말한다. 타고난 성격은 거스르는 성격이지만 변화된 성격은 복종하는 성격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데에는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권위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스르는 성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싫다(No)!』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에 복종하려면 생명 안에서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2 절, 회복역 참조).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좋지 않다. 심판이 권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II. 사랑으로 인하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포함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 안에서 많은 변화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생명의 표현이다. 그것은 다만 밖의 행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이다. 생명의 공급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하지 못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적으로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과 생명 안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부주의하다면 생명 안에서의 변화가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실행하려고 하면 생명 안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III. 전쟁으로 인하여****A. 잠에서 깨어남**

우리는 지금이 잠에서 깨어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밤은 잠을 자는 때이지만 『밤이 아주 깊었다』(13:12).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자지 않아야 한다.

**B.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병기를 지님**

이 시대는 밤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날이 썰 것이다. 다음 시대는 낮일 것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뿐 아니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병기를 지녀야 한다(12 절). 이것은 전쟁을 가리킨다.

**C. 낮에와 같이 행함**

『낮에와 같이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부도덕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13 절, 회복역 참조). 이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어두움의 일이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다.

**D. 그리스도를 옷 입음**

14 절은 매우 중요하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회복역 참조). 12 절에서는 『빛의 병기를 지니라』고 했고, 14 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의 병기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육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구절은 8 장 12 절과 일치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을 따라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라』(회복역 참조)고 말한다. 13 장 14 절에 있는 전쟁은 갈라디아서 5 장 17 절에서와 같이 정욕과 그 영 사이의 전쟁이다. 그리스도는 그 영이다(고후 3:17).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전쟁은 에베소서 6 장 12 절에 나타난 마귀나 공중에 있는 정사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욕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빛의 무기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러한 전쟁은 7 장 23 절에 있는 전쟁과 다르다. 거기에서의 전쟁은 우리 육에 있는 악한 법이 우리 생각에 있는 선한 법과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그 영과 아무 관계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둠에 속한 육의 일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6:4, 갈 3:27).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상생활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육에 대해 싸우는 우리의 무기다. 14 절에 있는 전쟁은 마귀나 악한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욕을 지닌 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면 살수록 그는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는 우리의 병기가 될 것이다.

#### E. 육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않음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 말한다. 우리는 육신에 어떤 것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육이 여전히 존재함을 가리킨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일지라도 육은 여전히 되살아 날 수 있다. 육은 배고파하며 음식을 갈구하지만 우리는 육을 죽기까지 굶겨서 정욕을 채울 여지를 없애야 한다. 육을 위하여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특히 어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몇

가지 예를 들겠다. 현재의 인간 사회는 어둡고 악하여, 육을 위한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있는 그림들과 광고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영적이므로 신문에 있는 악한 그림들을 볼 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 신문에 있는 어떤 광고와 그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육이 일어났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영화 광고는 육을 위한 공급이다. 더욱이 텔레비전도 배고픈 육에게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대적에 의해 많이 쓰였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근처에 깊은 우물이 있다 하자. 우물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물 근처에 돌아다닌다면 오늘은 그곳에 빠지지 않더라도 장래에는 빠질지 모른다. 우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멀리 떨어지는 편이 낫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 『주여, 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볼 때 내 영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것을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 보기를 포기해야 한다. 어쨌든 텔레비전은 대적이 육에게 공급해 주는 능력 있는 수단이며 그 영향의 결과로 많은 악한 것들이 나타났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13 장을 로마서의 어느 부분에 놓아야 할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12 장의 연속인 것 같다. 그것이 실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12 장 9 절부터 13 장 14 절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온전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12 장 1 절부터 8 절까지는 몸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다. 이 몸의 생활의

실행과 함께, 우리는 12 장 9 절부터 21 절까지와 13 장에서 묘사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로마서의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단락에 있는 모든 구절은 매우 명백하므로 그것들에 대하여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구절들 중의 몇 구절은 외우는 것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고 선을 추구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친숙하게 서로 사랑하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잠언과 같다. 청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변화를 체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생활의 실행을 묘사한 직후에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요구한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장 잘 제시한 것은 이 구절들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 대해 기도하고 서로서로 교통해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9/5 화요일

#### 아침의 누림

롬 14:1, 3, 6, 8-10, 12

- 1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3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 6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며,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안에서 믿는이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받음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 사실상 천연적인 성품대로라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한결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그의 자연적인 성품 안에서는 타인과 같이 지내기가 어렵다. 성도들을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한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에 관한 로마서 12 장 2 절의 바울의 말씀이 단지 몸의 생활의 실행에 관한 부분일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에까지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는다. 변화받음은 14 장과 15 장의 몇몇 양상에 뿐 아니라 13 장에 나오는 몇 항목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믿는이들과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교통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 싸움 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두 너무 타고난 그대로이고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는이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변화받아야 한다. 로마서 14 장 전체와 15 장의 일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믿는이들을 받는 문제를 다섯 가지의 주안점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 **I. 교리적인 관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 따라 믿는이들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자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많은 자녀가 있는 한 가족을 생각해 보자. 어떤 아이는 착하고, 어떤 아이는 나쁘다. 어떤 아이는 달콤하지만 어떤 아이는 개구쟁이이다. 이러한 큰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부모에게 달린 일이다. 만일 이 가족의 한 아이가 자기의 형제가 못됐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면, 그 불평은 그 형제에게 직접해서는 안되고 그를 낳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많은 자녀,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셨고 이들을 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은 믿는이들을 받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14 장 전체와 15 장의 일부분을 이 주제에 할애하고 있다. 로마서 12 장에서 우리는 몸을 본다. 그리고 로마서 14 장에는 경고가 있다. 만약 이 경고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리를 12 장에 계시된 그 몸을 조각조각 자르는 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 장에 의거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죽이고, 교리적 분열의 칼을 휘둘러 몸을 산산히 자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로마서 12 장에 의해 계시된 몸은 반드시 로마서 14 장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로마서 14 장이 없다면 우리는 12 장에 나타난 몸의 합당한 실행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 장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14 장은 간과해 버린다. 그들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교리적인 관념에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분열된 채로 남아 있다. 그들은 교리적인 관념들을 내려놓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몸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합당한 교회 생활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밝힌 후,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점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중요점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에 관한 한,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우리의 교리적인 관념을 따른 특수한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A.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음**

14 장 1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떤 믿는이들은 아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어떤 믿는이들은 믿음이 연약하므로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고, 모든 날을 다 같게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참된 믿는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정도의 믿음과 그들이 믿는이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 **B.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음**

로마서 14 장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교리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훌륭한

본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교리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 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는 식물(食物)과 절기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들이 원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놓아두라.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같은 것이다.

또 우리는 교리적인 의심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침례의 방법이나 침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에 대해 질문해 올 때, 여러분은 교리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교리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묻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적인 관념에서 떠나 우리 생명하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고, 내가 가진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

### C.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으므로 믿음

14 장 3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는 근거이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신 한, 우리 역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선 선택권이 없다. 어떤 믿는이가 아무리 약하고 괴상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받아야 한다.

### D.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삶

14 장 6 절부터 9 절을 읽어보자.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참된 믿는이들은 모두 주의 것이다. 세례의 방법이 어떻든지, 먹는 음식이 어떻든지, 지키는 절기가 어떻든지 모두가 같은 주님께에서 태어난 것이다. 6 절부터 9 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께 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적인 관념에 따라 그에게 그 이상의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리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수많은 관념에 따라 분열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일을 살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고, 우리가 주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 II.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심판대의 빛 가운데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10 절부터 12 절까지를 읽어보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릇이 내게 꿀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 절의 「하나님의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 장 10 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며(고전 4:5, 마 16:27, 25:19, 눅 19:15), 그때에 믿는이들의 생활과 일이 심판받을 것이다(계 22:12, 마 16:27, 고전 4:5, 3:13-15,

마 25:19, 눅 19:15). 이 심판은 믿는이들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믿는이들의 구원받은 후의 생활과 일을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은 믿는이들의 천년 왕국 안에서의 상(賞)과 벌(罰)을 결정할 것이다(마 25:21, 23, 눅 19:17, 19, 고전 3:14-15, 마 16:27, 계 22:12, 눅 14:14, 딤후 4:8). 믿는이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활과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나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의 생활과 일을 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믿는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으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관한 것이고, 믿는이들의 변화는 이 심판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침례로 자신의 낱음을 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극장에 가는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영화 구경하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주님이 심판대에서 그 일에 대해 따지실 것이다. 어떤 그룹에 있는 몇몇 자매들은 그들의 머리에 희고 긴 수건을 쓰고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작은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자매들을 항상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러한 자매들은 비록 집회 시간에는 희고 긴 수건을 쓰고 있지만,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그들의 남편에게서 머리의 권위를 빼앗는다.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판단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믿는이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심판대의 빛 안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나의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덮으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판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 즉 나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다. 새로운 신자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더 심판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14 장 10 절부터 12 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계산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8 장)

9/6 수요일

### 아침의 누림

롬 14:13, 15-16, 17-19, 21-23

13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15 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의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8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21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그대의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III. 사랑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는이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 앞에 부딪치는 것을 놓지 않으며, 형제들을 상심하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케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믿는이들을 사랑의 원칙 안에서 받아야 한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직후에 쓰여졌으며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쓴 것임을 기억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전적으로 사랑에 대해 전했고 그것을 영적 은사를

다루는 두 장 사이에 끼워넣었다. 13 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실행하는 가장 뛰어난 길을 제시하고 사랑의 많은 속성과 특징을 열거했다. 나는 사랑에 대한 이 관념이 바울이 로마서 14 장을 쓸 때 그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사랑의 원칙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한다.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한다. 사랑이 성도들을 받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 IV. 왕국 생활을 위하여

##### A.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

문맥에 따르면 16 절은 믿음이 더 강한 자들의 먹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믿음이 강하여 속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먹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없어 비방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는 데 조심해야 한다. 바울의 의도는 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 B.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을 삶

##### 3. 교회 -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마 16:18-19, 고전 6:10, 갈 5:21, 엡 5:5),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는 여러 학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다. 한 학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학파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 13 장의 시대에 중지되었다. 이 학파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오셔서 유대 민족에게 그것을 제시했지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연기하셨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로마서 14 장 17 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회복역 참조)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 여기에 있다는 강한 증거이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더 깊은 증거가 마태복음 16 장 18 절부터 19 절까지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교회와 왕국은 동의어이며 주 예수님 자신에 의하여 서로 바뀌어질 수 있게 사용되었다. 18 절에서 주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회복역 참조)라고 말씀하셨고, 19 절에서는 『내가 하늘의 왕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회복역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축은 실제적으로 왕국의 건축이다. 더욱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와 동등하게 여겼다(고전 6:10, 갈 5:21, 엡 5:5). 왕국이 중단되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왕국에 관한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 2. 훈련과 징치(懲治)에 속한 것

교회는 은혜와 생명에 관한 것인 반면에 왕국은 이 시대의 훈련과 오는 시대의 징치에 관한 것이다(마 25:15-30, 고전 3:13-15). 교회는 사람의 머리처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내 머리 뒤를 보면, 어떠한 구멍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앞면을 보면 일곱 개의 구멍을 볼 것이다. 내 머리의 뒷면과 앞면이 다를지라도 다 한 실제의 여러 면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 각도에서 보면 은혜와 생명에 관한 교회를 보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훈련과 징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보게 된다. 교회 안에서 한면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체험하며, 또 한면으로는 얼마만큼의 훈련을 거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다. 몇몇 형제회 교사에 의하면 모든 믿는이들은 왕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라. 우리가 왕을 닮았는가? 주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왕이 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몰라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연습을 한 적도 없다. 나는 영국의 왕들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다. 태어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왕은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지위는 또한 여러분의 훈련에 달려 있다. 느슨하거나 부주의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꺼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오는 시대에 징치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운명은 왕이 되는 것이며, 조만간 주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세세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의 일부분이다. 환경과 상황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알 수 없다. 여러분은 자신을 천사로 생각하고 자신을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여기겠지만 실지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열하며 사나운지 모를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배우자와 아이들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여러분 자신의 여러 차원의 사진들을 보여 주어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외칠 것이다. 『이것이 나인가? 내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다.』 내 자신이 이것을 체험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은 내 자신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건전한 시야를 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형제들이 없으면 나는 드러날 수 없다. 이것이 왕국을 위하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이다(엡 2:19, 딤후 3:15). 이 집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생명 공급을 받는다.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또한 왕국이다. 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스림을 의미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다. 저 장로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들이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한면에서 교회는 권속이요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집이다. 또 한면에서 교회는 왕국이며 다스리는 정부이다. 왕국인 교회에서 우리는 인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훈련의 문제이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왕국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집이며 또한 우리의 왕국이다. 집 안에는 사랑의 누림과 은혜의 공급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왕국 안에는 규율과 통치와 훈련과 징치가 있다. 교회의 두 면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할렐루야! 나는 또한 왕국 안에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 3. 왕국 생활은 무엇인가

### D. 평강의 일과 건축하는 일을 추구함

더욱이 19 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 하나니』(회복역 참조)라고 말한다. 평강의 일은 몸의 합일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 건축하는 것은 서로의 건축을 위하여 몸의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범주의 일을 다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평강으로 몸의 합일을 지키는 일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관념을 떠나야 하고 머리 속에 있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 사탄은 간교하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는 생명의 사역을 좌절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교리적인 관념과 머리 속의 지식을 사용해 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일을 지키기 위하여 평강의 일과 몸의 건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추구함으로써 그의 간교함을 이겨내야 한다.

### E.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지 않게 함

20 절과 21 절에서는,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말라 실로 만물이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선하니라』(회복역 참조)라고 말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이 많은 거룩한 역사를 하셨다. 우리가 교리적인 관념으로 어떤 믿는이들을 넘어지게 하면,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해야지 자기의 교리적인 관념을 주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습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고 어느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형제들의 건축을 주의해야지 지식 안에서 종교적인 관념을 지켜서는 안된다.

### F.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

22 절과 23 절에서 바울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한 것을 옳다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복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믿음 안에서 약한 자들이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먹는다면 정죄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약한 자들을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9 장)

### 9/7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15:1-4, 5-7

-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짚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하는데 유익이 되게 합시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제게 쏟아지나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 4 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5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 6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 오늘의 읽을 말씀

### V. 그리스도에 따라

#### E.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함

로마서 15 장 1 절에서는, 『이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믿는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항상 믿는이들의 약함을 담당하시고(고후 12:9),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믿는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똑같이 행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 B.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건축되도록 기쁘게 함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에 유익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2-3 절, 회복역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서 건축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된다. 건축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수치를 담당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축되도록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 C.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됨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되게 하사』(4-5 절, 회복역 참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3 절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안위를 낳는 교훈을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분명히 교훈으로 가득 찬 것이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안위로 공급을 받아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믿는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진 이러한 인내와 안위가 필요하다. 성도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함을 참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안위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보하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할 필요가 있다. 더 약한 믿는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참게 하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위를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 안위를 받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될 것이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므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서로서로 같은 생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은사나 종교적인 행습이나 어떤 다른 것에 따른다면, 우리는 나뉘어질 것이다. 서로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은사나 종교적인 행습에 따라 믿는이들을 받는 데에는 인내나 소망을 가진 안위가 필요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따라 모든 믿는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소망을 가진 안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합일을 지키고 몸을 건축하는 일에 주의한다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 D. 한 화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6 절에서, 『너희가 한 화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니라』(회복역 참조)고 말한다. 어떤 번역에서는 「한 생각과 한 입으로」라고 말한다. 헬라어에서 그 단어는 화음이지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화음이라는 단어는 실지로 한 생각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같은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한 화음 안에 있게 되며 같은 입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관념을 갖고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믿는이들은 많으나 오직 하나의 입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화음에 속해 있으면 언제나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

9 장 5 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신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것은 그의 인성에 따른 것이다. 그의 신성에 따르면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주 예수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 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서로서로 받음

7 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을 14 장 3 절과 함께 취할 때,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받은 것임을 증명한다.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가 믿는이들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 외의 다른 어떤 것에 따라서도 안된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와 교리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실행에 있어서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9 장)

9/8 금요일

### 아침의 누림

롬 15:16, 18-19, 25-28, 30, 32

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외에 그 무엇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나의 말과 행위로,

19 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25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26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3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32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 오늘의 읽을 말씀

#### I. 이방인의 제물

##### A.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15 장 16 절을 읽어보자. 『곧 나로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이 받으심직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회복역 참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이방의 믿는이들에게 공급했다. 그는 정찬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는 웨이터(waiter)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기는 우주적인 정찬의 웨이터였다. 이 정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찬양되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생명 주는 영이신 놀랍고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본질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더욱이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가 제사장임을 계시한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으로서는 그는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섬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 B. 편안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복음을 편안하게 전함으로 이루어진다(15:18-23). 15 장 19 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노라』(회복역 참조)고 말한다. 바울의 시대에 일루리곤은 유럽의 북쪽 끝에 있는 먼 지역이었다. 바울은 개화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미개화된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 더욱이 그는 서바나까지 모든 지역을 여행하기를 갈망했다(24 절).

우리의 복음 전파는 뛰어나야 한다. 우리의 복음이 일종의 천당에 가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급하는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즉 배고픈 죄인들에게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한다.

#### C.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됨

15 장 16 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이 받으심직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회복역 참조)고 말한다. 거룩계함을 입는 것은 분별되어 생명 안에서 변화로 거룩해짐을 뜻한다. 바울은 이방의 믿는이들을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제물로 생각했다. 한때 그들은 더럽고 오염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거룩게 되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그들은 변화되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공급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역사하여 그들의 성분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단체적인 제물, 즉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의 거룩한 성분으로 침투된 제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다.

## II. 사랑 안에서의 전달

### A.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이방에 공급하고 그들을 제물로 드림으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통과 사랑 안에서의 전달이 전개되었다(15:25-28, 30, 32).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전달이 이루어졌다. 전에는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들은 돼지였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 성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의 믿는이들은 유대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볼 마음이 있었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려는 갈망의 표현으로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갔으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그들에게서부터 유대로 돌아갈 때, 그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돌아갔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인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돌아갔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결과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령함이 너무나 비실제적이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다. 그러나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는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령함이 비실제적임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의 본을 생각해 보라. 그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는 이방의 믿는이들이 전에는 대적이었던 그리스도 안의 유대인 형제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현금한 것이었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후에 낡은 마음이 제거되고, 유대 형제들을 관심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줌으로써 이 관심을 실제적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바울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을 거룩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고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본을 보였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의 순수한 전달이며 관심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 B.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두 무리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았다.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으며,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가져왔다. 그러나 15 장 29 절에서는 세 번째 무리와 바울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믿는이들을 보고 싶어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쓰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으며,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유대 형제들에게 돌아왔으며,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기를 기대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며, 물질적인 소유를 전달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가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며,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신실함과 사랑으로 반응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에 서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교리적인 진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바울은 어디에 가거나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함을 나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교리나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한 전달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참된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물질적인 것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을 쏟아 부어야 한다. 바울은 매우 현명하여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합당한 실행의 그림을 교리적으로 보여 주지 않고 체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바울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의 체험을 보게 된다. 그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총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그들에게 전하러 온 것을 의미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0 장)

9/9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롬 16:1-5a, 23a

-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2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23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16:25-27

25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26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 유일하시고 지체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오늘의 읽을 말씀

#### III. 관심을 가지는 교통

##### A. 성도들 사이에, 교회들 간에

요약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이 다섯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즉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 교회가 가정 안에 있는 것, 교회를 어떤 사람의 교회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 온 교회들의 식주가 되는 것이 그것이다. 로마서 16 장에 기록된 안부의 말에서, 바울은 특별한 지방에서 뿐 아니라 온 교회들 가운데에서의 합당한 교회 생활의 중요한 지침서를 드러냈다. 그의 안부에서는 또한 많은 사랑스런 성도들의 특성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로마서 16 장에서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의 풍성과 미덕으로 표현된 순수한 교회 생활의 자세한 면을 보게 된다. 이것은 옛날의 교회 생활의 완전한 그림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로마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주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최종 완성은 교회 생활이다.

로마서 1 장과 16 장은 얼마나 큰 대조가 되는지! 1 장에서는 악하고 더럽고 정죄받은 사람들인 죄인들을 보게 된다. 16 장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형편없는 죄인들이 영광스런 교회가 되는가? 1 장부터 16 장까지를 통해 계시된 긴 과정, 즉 구속,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됨, 택하심,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된다. 긴 과정의 결과로 죄인들이 거룩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 B. 사탄을 궤멸시키기 위하여

성도들 사이와 교회들간의 관심을 가진 교통신을 보여 주는 안부의 말 뒤에,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발 아래서 속히 궤멸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16:20).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궤멸시키는 것이 교회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궤멸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한 수단이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몸과 하나일 때,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으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사고뭉치인 사탄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참여하게 된다. 사고뭉치인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평강을 갖기는 어렵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가 우리의 발 아래 궤멸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긴 증거로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의 궤멸과 하나님의 평강은 둘 다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된다.

### C.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들의 발 아래 사탄을 궤멸시키리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사도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한다(16:20).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됨을 가리킨다. 많은 믿는 이들이 교회 생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 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몸의 생활을 실행할 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음을 간증할 수 있다. 교회는 주께서 그의 은혜를 분배해 주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의 발 아래서 사탄이 궤멸되는 곳이며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일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 IV. 결론짓는 찬양

16 장 25 절부터 27 절까지 읽어보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결론짓는 찬양은 멜로디와 같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언급한다. 로마서 16 장에서 우리의 필요는 더 이상 구원이나 거룩케 함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는 견고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다만 견고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리나 분배되는 진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파와 비밀의 계시인 복음에 따라 견고케 된다. 오, 오늘날 성도들이 분열된 교리들과 나뉘어진 행습으로부터 구출되어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살아 계시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공급함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직 순수한 복음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한 비밀만이 우리를 견고케 하며, 교회 생활을 위한 합일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만세 동안 감취어져 있었고 계시되지 않았던 이 비밀은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골 2:2, 미국 표준역 참조)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는 믿는 이들의 생명과(골 1:26-27) 만유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엡 3:4-6)로서, 그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그의 몸인 교회이다(엡 1:22-23).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비밀이다(엡 5:32). 로마서는 먼저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6:3),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믿는이 안으로 역사하며(8:10),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13:14)를 말해 준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한 몸 안으로 함께 건축되어(12:4-5) 그리스도를 표현하는지를 계시한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지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는 서로 교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최종 완성이다. 이를 통해 사탄이

성도들의 발 아래 궤멸되고(16:20),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되며(16:20), 만세부터 만세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16:27).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든 이방인에게 알게 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셨다.

로마서 15 장과 16 장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15:5), 소망의 하나님(15:13), 평강의 하나님(16:20), 영원하신 하나님(16:26),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16:27)이라 불리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 - 인내, 안위, 소망, 평강, 지혜, 영원함 - 에서 풍성한 하나님이다. 로마서의 복음은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 완성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0 장)

#### 찬송: 847 영 안의 교통 사모하네 (中:611)

- 1 영 안의 교통 사모하네 영 안에 섞여지기를 독립된 행동 벗어나서 영 안의 건축 사모해.
- 2 영 안의 교통 사모하여 내 영을 활짝 열겠네 폐쇄된 고립 벗어나서 누구하고나 교통해.
- 3 영 안의 교통 사모하여 내 영을 해방하겠네 자신의 주장 벗어나서 영으로 장애물 이겨.
- 4 영 안의 교통 사모하여 영으로 함께 기도해 거짓된 가면 벗어나서 영 안에 참된 교통해.
- 5 영 안의 교통 사모하여 균형된 교통 갈망해 치우친 일들 벗어나서 봉사와 교통 겸하리.
- 6 주님 이 갈망 이루소서 성도의 교통 반향해 주님의 건축 속히 이뤄 주 계획 성취하소서.

#### 9/10 주일

#### 아침의 누림

고전 12:12-14, 18, 23-27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23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5:1-1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7-39 장

#### 2 단계-주제별 연구

Crucial Point: The Selection, Predestination, and Mercy of God

Scripture: 로마서 9:1-1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22, 58

Supplemental Reading: none

찬송: 25

For study questions and additional materials,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